

AIG·라이나 ‘선방’, 악사 ‘손실’… 보험손익이 실적 갈랐다

자산 1조 외국계 손보사 3곳
상반기 실적 최대 780억 격차

라이나 순익 331억, 보험손익 435억
AIG 순익 595억, 215억 늘어나
악사 보험손익 125억 적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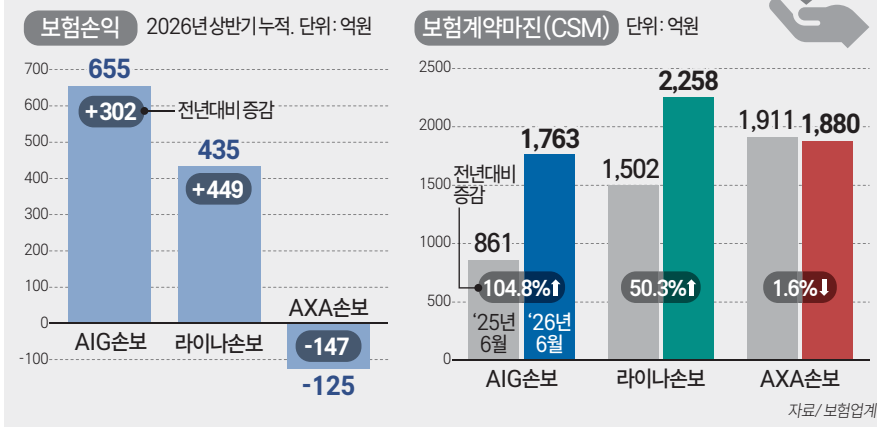
자산 1조원 안팎의 비슷한 체급에도 AIG손해보험은 595억원, 라이나손해보험은 331억원의 순이익을 낸 반면 악사손해보험은 5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세 회사 모두 투자손익은 감소했지만 AIG손보의 계리가정 변경, 라이나손보의 재보험 적자 축소, 악사손보의 기타사업비 급증이 보험손익을 갈라 최대 780억원의 격차를 만들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총자산은 라이나손보가 1조776억원, AIG손보가 1조672억원, 악사손보가 8494억원으로 집계됐다. AIG손보와 악사손보는 국내 법인이고 라이나손보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이다.

◆ 투자손익 모두 줄었는데…보험손익은 780억 격차

AIG손보의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0억원에서 595억원으로 215억원 늘었다. 라이나손보는 33억원에서 331억원으로 298억원 증가했다. 반면 악

외국계 손보 3사 실적 추이



사손보는 87억원 흑자에서 5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투자손익 감소는 공통적이었다. AIG손보의 투자손익은 132억원에서 117억원, 라이나손보는 62억원에서 43억원, 악사손보는 95억원에서 56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실적을 가른 것은 보험손익이었다. AIG손보의 보험손익은 353억원에서 655억원으로 302억원 증가했고 라이나손보는 14억원 적자에서 43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악사손보는 22억원 흑자에서 12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AIG손보와 악사손보의 보험손익 격차만 780억원이다.

AIG손보는 보험수익에서 보험서비스

비용을 뺀 금액이 737억원에서 1060억원으로 323억원 늘었다. 반면 재보험손익은 216억원 적자에서 264억원 적자로 악화됐다. 기타사업비용은 168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감소했다.

AIG손보는 공시에서 장기보험 신계약 물량 증가와 갱신계약 요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유리한 가정변경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312억원이 환입됐다.

라이나손보는 재보험 부문에서 반등의 동력을 얻었다. 보험수익에서 보험서비스 비용을 뺀 금액은 572억원에서 692억원으로 120억원 늘었다. 여기에 재보험손익 적자가 516억원에서 184억원으로 332억원 줄

었다. 재보험 적자 축소는 전체 보험손익 개선액 449억원의 약 74%에 해당한다.

악사손보는 보험수익에서 보험서비스 비용을 뺀 금액이 95억원에서 96억원으로 소폭 늘었고 재보험손익 적자도 69억원에서 58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기타사업비용이 3억원에서 163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보험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악사손보는 공시에서 기타사업비와 투자비용 증가를 순이익 감소 원인으로 밝혔다.

◆ CSM 늘어도 유지율 하락…상반기 이익 지속성은 별개

장래 보험이익의 재원인 보험계약마진(CSM)은 AIG손보가 861억원에서 1763억원으로 104.8%, 라이나손보는 1502원에서 2258억원으로 50.3% 증가했다. 악사손보는 1911억원에서 1880억원으로 1.6% 감소했다.

CSM 증가분이 모두 신계약 성과인 것도 아니다. AIG손보는 신계약으로 CSM이 1074억원 늘었지만 경험조정에서 435억원 감소했다. 라이나손보 역시 신계약 효과가 558억원, 가정 등 미래서비스 변경 효과가 932억원이었지만 당기 예상차로 363억원이 줄었다.

계약 유지율 하락은 세 회사의 공통 과제다. 13회차 유지율은 AIG손보가 59.97%로 1.40%포인트(p), 라이나손보

가 63.21%로 4.37%p, 악사손보가 71.01%로 0.94%p 하락했다. 49회차 유지율도 각각 2.85%p, 4.30%p, 5.39%p 낮아졌다. 유지율은 전년 동기와 서로 다른 계약군을 대상으로 산출돼 CSM 변화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만, 신규 판매 이후 계약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6월 말 경과조치 전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라이나손보 275.91%, AIG손보 243.54%, 악사손보 158.97% 순이었다. AIG손보와 라이나손보는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악사손보의 경과조치 후 비율은 185.68%였다.

상반기 성적표만 보면 AIG손보와 라이나손보가 악사손보를 크게 앞섰다. AIG손보는 가정변경에 따른 환입, 라이나손보는 재보험 적자 축소의 영향이 컸다.

하반기에는 이 같은 효과를 제외하고도 보험이익을 반복할 수 있는지, 악사손보는 급증한 기타사업비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가 세 회사의 실제 수익력을 가를 전망이다.

악사손보는 “올해 4월 시행한 특별퇴직 프로그램으로 인해 전년 대비 일회성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뿐 그외 기타 사업비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카드론 잔액 39.5조… 60대 이상 증가폭 최대

8개 카드사, 7월 말 카드론 잔액
60대 이상 증가액 10.9조 6.9% 증가
20대·30대 각각 4.8%·4.6% 감소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올해 카드론 이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젊은 층의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지난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39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9조1024억원) 대비 4183억원 증가했다.

연령 미상을 제외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카드론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60세 이상의 카드론 잔액은 같은 기간 10조1985억원에서 10조8990억원으로 6.9% 증

가했다. 50대 대출 잔액도 2.1% 늘어나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젊은 층의 카드론 잔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20대와 30대의 카드론 잔액은 각각 4.8%, 4.6% 감소했다. 20대는 1조1496억원에서 1조948억원으로, 30대는 4조551억원에서 3조8699억원으로 축소됐다. 40대 역시 10조2019억원에서 9조8743억원으로 3.2% 줄었다.

이에 자연스레 중장년층 카드론 비중도 커지고 있다. 7월 전체 카드론 잔액 중 5060세대의 비중은 약 62%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0.6%)과 비교해 1.9%p(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카드론 잔액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 이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연체율 악화는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30대가 2.42%에서 2.96%로 0.54%p 올라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악화됐다. 이어 40대가 0.46%p, 20대가 0.41%

p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0.35%p, 50대는 0.24%p씩 오르며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초 경기 침체에 더해 빚투 수요가 은퇴 세대까지 확장되면서 중장년층의 급전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은 자산 가격 하락, 누적된 고금리 이자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고 상환 한계에 맞닥뜨렸다는 분석이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서민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빚투와 가계대출 관리에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에게 카드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추가로 배분한다. 기존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약 0.5%p 안팎의 추가 한도가 부여될 전망이다.

/안재선 기자 wotjs187@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즉시 정지

금융위, 명의도용 차단 11일 시행

앞으로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신고 접수 이후 금융거래 정지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사망자 명의로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최장 1개월의 사망신고 기한과 월 1회 실시되는 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사망 사실 확인까지 최장 2개월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한 사망신고 정보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부정거래 차단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며,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즉시 차단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들은 행·보통·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4890개사로 늘린다. 각 금융사는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입급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단, 금융거래 중단 이후에도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을 이유로 인출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을 허용한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공유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안송진 기자 asj1231@

롯데건설,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수주

올해 도시정비 누적수주 4조 돌파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원을 돌파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일 열린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26층, 4개동, 공사비 4002억원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6건, 누적 수주액 총 4조110억원을 달성했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한 ‘도곡 르엘’을 단지명으로 제언했다. 특히 글로벌 건축 설계사인 저디(JERDE)와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지 곳곳에는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롯데



서울 강남구 ‘도곡 르엘’(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투시도. /롯데건설

데일드타워와 대모산, 강남 도심의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해 일상 속에서 여유와 특별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 내 조경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특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짜리교개공원에서 단지까지 연결되는 약 3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입주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잔디광장과 정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이번주 전국 7개 단지서 2852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등 청약

9월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물량이 크게 늘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8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21가구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경기 성남시 신흥동 ‘성남북정2A1(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등에서 청

약을 진행한다.

성남북정2A1신혼희망타운은 신흥동 81-4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총 892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 428가구를 제외한 본청약 166가구를 이번에 공급한다. 본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보형 기준 7억6637만원~7억9845만원, 전용면적 56㎡는 8억1214만원이다.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 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3년, 재당첨제한 10년이 적용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 5월이다. /안상미 기자